

Ayo Adewuya 박사 , 고린도후서, 11회차

고린도후서 10장, 바울의 사도적 변호

© 2024 Ayo Adewuya 및 Ted Hildebrandt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1, 고린도후서 10장, 바울의 사도적 변호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0-13장에 대한 검토를 시작합니다.

이 장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의 입증을 논의하면서 함께 진행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옹호하면서 다양한 영역을 살펴볼 것입니다. 서론으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케리를 비웃고 조롱하려는 시도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케리가 구두장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케리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구두장이가 아니라 평범한 구두장이 또는 수선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평범한 구두장이가 선교사가 될 자격이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비슷한 역동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범하고, 일하는 사람, 가축 노동자. 그렇다면 왜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를 사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을 거라고 고린도인들은 말할 것이다. 그 이상이어야 한다. 고린도인 중 일부는 그렇게 말하는 듯하다.

사도는 품위와 인격의 강인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의 그의 반대자들은 그를 우유 같고 온화하고, 온화하고 소심하며, 척추가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대답하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는 물기보다는 젖는 경향이 더 큽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바울을 희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다양한 허위 진술에 맞서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라고 주장하는 고린도의 거짓 교사들 중 일부는 바울의 권위를 비방하고 그의 사도적 사명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경건한 특성을 오해하고 그의 현명한 목적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했는가. 나 자신이라는 것은 똥똥하거나 게으르거나 그저 보통 느긋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대로, 그의 온유함은 그가 적들과 독자들을 대하는 확고함과 현실성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3장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어조와 수사학의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이 장들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직의 합법성이라는 주제를 새로운 활력으로 다룹니다.

이제 그는 거짓 사도들이 주로 그에게 가한 개인적 공격에 맞서는 데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11:13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들이 교회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부 고린도인들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구절 전체에 스며들어 있으며 주로 죄를 지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할 준비를 하면서 그는 참된 사도적 사역의 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앞의 장들에서 한 것처럼 자신을 복음과 동일시하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벤 위더링턴이 말했듯이, 1장에서 9장까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던 것이 10장에서 13장까지는 펄펄 끓어오릅니다. 인용문 끝. 즉, 이제 우리는 1장에서 9장, 10장에서 13장 사이에 갑작스러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과거는 1장에서 7장까지 지배하는데, 바울이 최근의 여행 행적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새 언약의 본질과 따라서 그의 사도적 사역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8장에서 9장의 호소는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신자들을 위해,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성도들의 제물을 완성하고자 노력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초점은 고린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10장에서 13장에 있는 그의 반대자들에게로 옮겨가는데,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옹호하면서 미래의 관점이 자리 잡습니다.

이제, 책의 서문에서 말했듯이, 분할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9장과 10~13장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10~13장이 별도의 서한을 구성하거나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잃어버린 이전 서한의 일부, 슬픈 서한, 심지어 고린도에게 보낸 후기 서한.

하지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는 고린도후서의 문학적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합시다. 분할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이 책이 여기저기에 있는 다양한 작은 부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잠시 인정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정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구절의 메시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문학적 통일성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정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목사나 신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고린도인과 바울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장들은 세 가지 명확한 부분으로 나뉩니다 .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의 반대자들과 직접 맞선다. 11장 1절에서 12절과 13절에서 그는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12장 14절에서 13장 10절까지 바울은 고린도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교회가 질서를 갖추도록 권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올 때 엄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 편지는 13:11-14에서 마지막 권고와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하는 10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에서 바울의 권위에 반대했던 침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고린도에서 바울의 반대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다양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제리 섬니는 디터 조지가 쓴 것에 대한 반응으로 고린도에서 바울의 반대자들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을 썼고, 그 대화들은 훌륭하고, 볼 만한 좋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침입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전복하기 위해 왔고,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유대교 관습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특별한 의무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대자들에 대한 강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에 복종합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10장을 1절부터 읽어 봅시다. 사실, 우리는 장 전체를 읽을 것입니다. 이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함으로 여러분을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마주할 때는 온유하지만,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합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담대하게 대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새를 파괴하는 데에 강력한 신성함입니다. 우리는 추측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높은 것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순종이 완전해질 때마다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물을 겉모습 그대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면, 그는 다시 자기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내가 주께서 여러분을 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주신 우리의 권위에 대해 조금 더 자랑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편지가 무겁고 강력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존재는 인상적이지 않고 그의 말은 경멸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재 중일 때 편지로 전쟁에 임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임할 때에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분류할 만큼 담대하지 못하나, 그들이 스스로를 헤아리고 스스로를 비교할 때는 이해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분량 안에서 자랑하여 너희에게까지 이르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한 것같이 지나치게 확장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강요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까지 먼저 온 자니 우리의 분량을 넘어 자랑하지 아니하고 곧 다른 사람의 꼬리표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위 안에서 더욱 확장되어 너희를 넘어 복음을 전파하고 남의 범위에서 이룬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니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 장 전체에서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아시다시피 사도는 3절의 기본 주장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양한 반대자들의 비난에 맞섰습니다. 3절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일하더라도 육신으로 우리와 싸우지 아니한다고. 저는 이 지점에서 NRSV의 번역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지만 인간의 기준에 따라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육신으로 살지만 인간으로 산다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의 메시지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사역에서 바울의 무기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의 권위는 일관적입니다. 7절에서 11절에서 볼 수 있고, 그의 자라는 12절에서 18절에서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폴이 상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글쎄요, 왜 상대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누군가가 제안했듯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술은 이미 상대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링턴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기술이 이미 상대방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친구와 동료의 이름을 밝히지만, 적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글쎄,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을 찬양하지 말자. 매우 흥미롭다.

보시다시피,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수사적 성격은 10장에서 13장과 동일합니다. 여기의 분위기는 방어적이고 우리 학자들이 법정 수사학 또는 사법 수사학이라고 부르는 더 큰 의미에 속합니다. 마치 바울 자신이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법정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1장에서 7장까지와 똑같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을 설득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로마 수사학의 설득적 전통에 따라 글을 썼습니다. 당시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그는 아마도 자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법의학적 기록은 사도적 권위와 복음에 대한 그의 변호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1장에서 9장까지와 10장에서 13장까지를 쓰는 사이에 새로운 상황이 발전한 것입니다.

이전 세션 중 하나에서 바울이 밤새 앉아서 오늘 고린도후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쓰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1장부터 9장까지 썼을 것이고, 그 사이에, 그가 그것을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보내기 전에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그는 10장부터 13장까지 다르게 썼습니다.

프랜시스 영이 그녀의 책인 *Meaning and Truth*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듯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그녀는 고린도후서 1~9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되는 주제의 대부분이 실제로 10~13장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몇몇 겹치는 언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자랑의 문제인데, 이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 발견되고 다른 유사한 문제들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당신은 그가 자신을 방어하는 온유함과 확고함을 봅니다. 아니면 당신은 바울의 무기의 영적 본질을 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가 다음에 그들을 방문할 때 대담하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필요가 없도록 간청합니다.

그는 고린도의 어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에 응답하는 듯합니다. 존 칼빈은 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보세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서 자신의 열등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겸손하고 소심하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맹렬한 공격을 가합니다. 왜 그의 말없는 것이 그의 편지보다 대담한가요? 그것이 바로 존 칼빈이 말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비평가들의 생각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존재는 그의 편지에서 보여준 권위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0절에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적 권위를 행사하는 데 대한 바울의 주저함을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적 사역의 영적 본질을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거기에 와서 자신을 과시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들이 바울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인식과, 따라서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편지의 이 부분을 권위 있는 태도로 매우 크게 울리는 강조된 개인적 호소로 시작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 자신, 바울.

호소. 그렇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강력한 명칭입니다. 바울이 나 자신 바울이라고 말할 곳은 여기뿐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는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풀입니다. 여기서, 제 말은, 그리스어는 사실 매우 강합니다. 그는 *autos ego*라고 말합니다.

풀은 그걸 안 써요. 제 말은, 에고 파울로스 . 에고 파울로스 .

나 자신, 풀. 나 풀. 풀은 아마도 자신을 공동 발신자 티모시와 구별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게 문제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폴이 협력하고 디모데의 이름을 편지에 넣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나 자신, 폴”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그 동료들과 자신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일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모욕과 비난이 그의 동료들이 아니라 폴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권위의 망토를 짊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 자신, 바울”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 사도적 권위의 행사를 완화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명령하는 대신, 그는 “당신께 호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는 즉시 “당신께 호소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께 호소합니다.”

매우 흥미롭군요. 저는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특별한 의무감을 느꼈고, 여기서 그는 상황을 단호하게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에 복종했습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겸손하다고 비난했지만, 바울의 확고함은 그가 그것을 다루는 대담함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적들은 그가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겸손했고, 그들이 없을 때는 대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실제로는 겁쟁이이며, 멀리서만 대담하게 행동하는 겁쟁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그가 올 때 적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보여줄 필요가 없도록 처신하라고 촉구함으로써 그 비난을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2절에서 보듯이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이 온유하지만 담대하고

용감할 수도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그의 담대함은 그의 편지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온화했지만, 글을 쓸 때는 대담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돌보기 위해 행동하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격려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 중 하나임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호소했고, 그는 회중에게 동료 신자로서 말을 걸었으며, 그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세션 중 하나에서 바울이 겸손하게 권위를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권위는 그에게 봉사하도록 위임하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애정 어린 방식으로 행사되며, 바울은 간접적으로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라고 호소합니다. 아니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인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온유함과 온유함으로 정의되는 그리스도의 성품은 바울의 호소의 방식이자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두 용어가 다른 초기 기독교 문헌을 포함한 고대 문헌에서 함께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도 8장 9절에서와 같은 질문이 적용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을 언급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미 존재하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으로, 그는 성육신하여 인간의 비천함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마가렛 스칼은 이러한 특성이 예수의 굴욕적인 죽음에도 적용된다고 제안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굴욕적인 죽음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예수의 역사적 삶에서 드러난 특성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예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일부 해석자들은 온유함과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연구하여 결정하려고 합니다.

두 용어 모두 온화함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단순히 동의어는 아닙니다. 서로 다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한정한다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은혜와 사도직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더 익숙한 온유함은 온유함을 정의합니다. 그게 거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온유함, 즉 온유한 자제에 대해 말합니다. 온유한 자제. 당신은 총독 펠릭스가 바울에 대한 고소를 정중하게 들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같은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의 말을 들어줄 만큼 친절하세요. 이것은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유하고 온순합니다.

제 말은,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다, 나는 천천히”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온유함은 그의 지상 생활 내내 온화한 태도를 묘사한 것인데, 심지어 그의 수난 중에도 보복하지 않으셨던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자기 중요성에 대한 감각에 지나치게 감명받지 않는 자질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설이라고 말하죠.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설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설로 봅니다.

폴은 그렇지 않았다. 폴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전설로 보지 않았다. 전혀.

그는 부풀려진 자만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함, 겸손, 온유함, 온유함에 대해 말할 때, 성경에서 그것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겸손하고 온화한 태도, 공격에 대한 참을성 없는 복종, 악의 없는 자유, 복수에 대한 욕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바울에게 행해진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기독교적 미덕이며, 예수가 그의 사역의 훈련에 복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훈련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그게 온유함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온유함도요. 온유함에는 은혜로움과 관용이 포함되는데, 상황의 사실이 다른 반응을 요구할 때 양보하는 자질이지만, 당신은 양보합니다.

단어 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관용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용어를 통해 바울은 존 칼빈이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온유함보다 그의 마음에 더 가까운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는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바울은 목회서에서 다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비난에 비추어 자신을 아이러니한 어조로 설명합니다. 그가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감히 반대함으로써 담대함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여러분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압니다. 저는 지금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육신에 따라 걷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 용감하게 행동할 것을 제안하는 확신으로 대담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전혀요. 우리는 소심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소심하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강한 태도로 당신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인들은 아마도 이 사도가 매우 약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애덤 클라크는 그들의 생각을 의역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인용하자면, 여러분의 이 사도는 허풍쟁이에 불과합니다. 그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그가 없을 때 얼마나 비열하고 멸시스러운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자랑하고 자랑하는지 보세요-인용문 끝. 제 말은, 그들이 말한 것,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는 그저, 잊어버리세요, 그는 매우 소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낮음, 낮음,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은 신분의 형제를 두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쓰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때는 너희에게로 오고, 우리가 떠날 때는 소심합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매우 이례적인 부정적이거나 매우 경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 그것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당신은 노예적이고, 당신은 굴욕적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그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NIV에서 '소심한'이라는 단어를 모의 따옴표로 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부르던 것입니다. 이런 더 부정적인 의미는 고린도인들이 알다시피 더 큰 헬레니즘 세계에서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역설적으로 그들을 긍정합니다.

당신은 내가 낮다고 말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의미로는 아닙니다. 당신은 내가 낮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제로 낮지만, 당신이 이해하는 낮음의 의미로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1절에 있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마주할 때.

보시다시피, 바울이 주장을 머리 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바울, 오, 그는 매우 비천하고, 매우 소심하고, 매우 노예적입니다.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 옳습니다. 저는 소심하고, 저는 비천하지만, 당신이 소심하고 비천하다고 보는 것은 당신이 이해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그의 반대자들이 그를 반대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그리스도의 비천함의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그런 다음 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실, 2절에서 그 단어, 나는 묻습니다는 다른, 더 부드러운 동사입니다.

이전에 그는 "나는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parakaleo*" 라고 했지만 , 여기서 그는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묻습니다"라는 단어는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Deo mai , 간청합니다. 이제 그는 1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호소를 재개합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올 때 강요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사람들에 맞서 용감하게 행동할 때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제 말은, 여기 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자에게서 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대담하지만, 내가 보여주는 대담함은 당신이 원하는 대담함과 다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기준에 따라 일하는 것처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 용감하게 대처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자신이 인간적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만, 자신이 육신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그리스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말장난이 있습니다.

카타사카(katasaka), 즉 인간적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이 엔사키(ensaki), 즉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인간적 기준에 따라 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는 인간입니다. 육신은 그의 삶과 사역의 방향의 근원이 아니지만, 그는 필연적으로 인간으로서 산다.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 세계에서 살고 인간적 약함에 굴복하지만, 그는 단순한 인간으로서 싸우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노동하지 않습니다. 비판자들에게 대답하면서 바울은 도덕적 은유에서 군사적 은유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엔사키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세상이 하는 것처럼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과 육신에 따른 전쟁의 대조는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는다는 번역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군사적 이미지를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요새를 만들고, 높은 것을 만들고, 포로를 잡고, 준비된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특히 대다수의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느 시점에서나 그 구절을 인용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특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요새를 무너뜨리는 데 강력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추측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높은 것을 파괴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잘 알려진 구절이 여기에 있지만, 이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 거기에 침입자였던 사람들, 들어와서 실제로 육신에 따른 인간과 싸우고, 그를 모욕하고, 질책하고, 그의 성격을 파괴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는 내가 그들이 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는 우리의 전쟁 무기라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것이 신성한 권능의 것이고 신성한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것과 대조적으로 그것을 정의합니다. 바울의 무기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 그가 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과 그가 선포하는 복음.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묘사하고 복음이 요새를 파괴하거나 허무는 신성한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포로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행렬에서 그를 보았듯이, 지금은 복음이라는 영으로 강화된 무기로 무장한 군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먼저 거짓된 가르침과 오도된 추론으로 그의 사역을 공격하는 자들의 강력한 요새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힘과 재능이 아닌 영의 힘에 의존하는 무기를 들고 옵니다.

제 말은 , 저는 우리 중 다수 세계,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편재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 중 다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 악령은 편재하고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사용하고 전쟁 무기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맥락에서 그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군사적 은유를 세 가지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분사 표현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룹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세우는 모든 주장과 허세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의 논증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부정적인 사용이나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의 비평가들의 구체적인 비판, 다른 논증,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만적이고 미묘한 추론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 중 일부가 마귀의 동기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와 그의 사역에 대해 주장하는 논증이 있고, 물론 그것이 그의 사역에 미치는 위험과 진행 중이던 기만에 대해 말하고, 그런 다음 그는 복음에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장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식별합니다.

그것은 허세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야 하며, 그런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으로 계속됩니다.

여기서 그는 생각이란 인간의 마음이 진리와 복음의 주장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설계나 계략을 말하며, 그러한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포로 생활은 반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설득합니다. 바울은 요새화된 도시의 포로가 된 반역적인 수호자들을 묘사합니다. 요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으로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진지하게 주장합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그가 육신에 따라 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가 죄의 권세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삶과 사역을 수행했다고 암시했습니다. 그것이 암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안녕이 위협받을 때 대담할 수 있으며 상황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바울의 확고함은 그가 영적인 적들과 벌이는 싸움에서도 드러난다. 바울은 그의 적들처럼 육신을 따라 영적인 싸움을 벌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무기가 인간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고 싶어할까요? 그는 우리가 세상의 연극과 속임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말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은 메시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틀렸다면 우리는 전투에서 졌을 것입니다. 믿는 자의 무기는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추론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으로 정의한 적의 요새를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거부자들을 저항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계시하기를 기뻐하신 지식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무서운 거룩한 포병으로 무장하고 고린도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모든 불순종을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완료된 후에야 모든 저항을 몰아내고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바울의 낙관주의를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을 옹호하는 데 매우, 매우 분명합니다. 그는 구절에서 우리가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도직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은유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순종 행위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는 반군을 지칭하는 것이지, 침입하는 거짓 사도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거짓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계속 남아 있는 나머지 반역도 처리할 것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처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단어, 단순한 순종의 단어를 봅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순종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암묵적으로 사도들의 순종입니다.

영적 무기로 그리스도인 전쟁을 치르려면 세상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사로잡는 데 사용하는 방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영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제 7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권위의 일관성과 약함의 비난에 대한 대응을 유지합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는 사물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면,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안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11절에서 전쟁의

이미지로 자신의 사역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이제 7절에서 11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어떻게 권위를 행사할 것인지 설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권위의 성격과 목적을 적절히 고려하면, 그가 편지에서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바울이 떠나 있을 때 그들에게 쓴 말씀과 그가 그들과 함께 압박을 받았을 때의 행동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습니다.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를 잘못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그런 경우라고 잘못 판단했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3장부터 6장까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고, 7장부터 11장까지 그들에게 그가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고려하면 그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를 잘못 판단합니다.

7절에서 그는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거기에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인지, 아니면 질문인지, 아니면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사물의 표면만 보고 있고 NASB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고, 비겁하지만 7절에서 NRSV를 볼 때,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질문은, 킹 제임스 성경이 취할 것인지, 당신은 겉모습에 따라 사물을 보는지, 아니면 NRSV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지, 아니면 NIV의 여백에 있는 것처럼 명백한 사실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명령형으로 번역되었는지입니다.

이제, 각 옵션에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있지만, 눈 앞에 있는 것을 봐, 보이는 것을 봐, NRSV는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듯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명령형으로 사용할 때 그의 글의 다른 곳에서 중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여러분 가운데서의 나의 사역을 주의하라. 그는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서의 그의 사역에서 그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주의하라고 요청합니다. 눈 앞에 있는 것을 보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제 8절에서, 내가 자랑하더라도, 비록 내가 권세를 조금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그 권세는 주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니,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은 어떤 우월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보다 우월한 의미에서 그들은 바울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Magrath와 Thoreau는 Christus A9가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말하는 속기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이 이 구절을 사용하는 데 포함될 것입니다. 고린도인들과 함께 새 언약 공동체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반대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그를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중 하나가 아니고 사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펠라기우스가 이 댓글에서 한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용문, 자기만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용문 끝. 자기만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인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종이 아니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누군가, 어쩌면, 만약 누군가라면, 침입자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익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구라도, 그저 상대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었다고 말하려면. 하지만 그는 누구라도, 물론 고린도인들은 누구라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언급은 아마도 구체적이기보다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글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이질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그럴듯합니다. 누구든지, 우두머리나 언급된 이름이나 누구든지, 바울이 말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속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권위를 조금 지나치게 자랑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내어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바울의 사역에서 상승이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서의 내 사역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자랑하더라도, 당신은 같은 단어가 이전에 등장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저 자랑할 뿐이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존 웨슬리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이상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폴은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전달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알거니와 주께서 너희를 허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사물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촉구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오늘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들의 속임수와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사실을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우리에게 불쾌할 수 있는 사실이라도 무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보라고 말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누구를 보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는 평소에는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침묵을 지킴으로써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입증했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글을 썼지만, 그의 권위에 동등한 영광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 그들 자신의 유익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교화를 위해 그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파괴를 위해 스스로 임명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암시합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은 교회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참된 사도는 결코 이런 목적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독자들에게 변명하거나 두렵게 하기 위해 서신을 통해 사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절에서 그것을 봅니다. 고린도인들은 또한 그의 적들이 그에게 한 또 다른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10절과 11절에서 그 비난을 봅니다. 그들은 그의 편지는 무겁고 강력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모습은 인상적이지 않고 그의 말은 경멸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것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부재 중일 때 편지로 내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도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그는 막대기를 들고 고린도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18절로 넘어간다.

여기서 그는 자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사실을 다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자랑의 근거를 고려하라고 호소합니다. 보시다시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자랑이 참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있는 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적들의 자랑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근거가 없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을 우수성의 기준으로 삼았고, 다른 사람들의 업적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생활 방식은 바울의 생활 방식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헤아리거나 이 사람들과 비교할 용기가 없으므로, 그들이 하는 것처럼 서로 헤아리고 비교하는 자랑을 거부하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경쟁 문화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쟁 문화에서 비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나이, 키, 학년, 능력을 비교합니다. 어른들은 업적, 교육, 지위, 집, 차, 교육, 물질적 획득을 비교합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들은 회중의 규모, 회의 참석, 재산, 음악,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수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우리를 잘 보이게 하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며, 바울은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날 그런 비교와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좋은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가장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런 비교가 계속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악하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죠? 우리는 목사끼리, 설교자끼리,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목소리, 설교 방식 등을 비교하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서로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의 반대자들은 일련의 기준입니다. 폴은 그것에 가담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그런 일에 연루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3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그는 실제로 다른 사람의 수고로 인한 어떤 공로도 차지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신 분야, 즉 고린도를 포함한 분야에 대해서만 자랑하려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는 고린도가 그의 봉사의 적절한 영역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까지 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15절에서 다른 사람의 수고를 자신의 수고로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사람들의 믿음이 충분히 커져서 그들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 이 지역의 다른 미지의 영역,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서 사역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그는 고린도 너머, 심지어 로마 서쪽에 복음을 전파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이미 한 일을 자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10장에서 자랑하는 것은 모든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에 근거합니다. 모든 자랑.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 성취된 모든 것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고린도의 첫 번째 교사들이 한 것처럼 자신의 우수성 기준에 따라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칭찬의 가치는 말하는 사람의 성격에 달려 있으며, 말하는 사람의 말에는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만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사 kalkomai 와 명사 kalkemai 또는 kalkesis , 자랑하는 것은 신약에서 약 60회 나타납니다.

그러니 잠깐 이야기해 봅시다. 이 중 54, 54, 55개 정도가 본문의 차이에 따라 바울서신에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에는 60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서신에는 54, 55개 정도가 나옵니다.

단어 group은 부정적인 braggadocio 또는 긍정적인 taking pride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차이는 자랑할 대상과 자랑할 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신을 찬양하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항상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인간적 약함과 고통을 자랑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17절과 18절에서 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그는 자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기 위해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인용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주님 안에서여야지, 우리의 인간적 업적이나 재능이나 재능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자랑의 근거는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성취된 것이어야 한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아요 아데 우야 박사입니다 . 이것은 세션 11, 고린도후서 10, 바울의 사도적 변호입니다.